

번호 22-5

제 목	국문	부산지역 거리노숙자들에서 노숙기간과 신체적 건강·우울정도의 관련성			
	영문	Association of Homeless Duration with Physical Health State and Depression among the Street-based Homeless in Pusan			
저 자 및 소 속	국문	하이호, 조병만, 이수일, 이정호			
	영문	Ea-Ho Ha, Byung-Mann Cho, Su-Il Lee, Jung-Ho Lee			
분 야	보건관리 (o)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o)
	역 학 ()		전 공 의 (o)		포스티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1998년 하반기부터 우리사회는 사회구조의 조정작업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노숙자라는 새로운 사회인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1998년 6월 현재 노숙자 수가 3,000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홈리스는 우리나라의 노숙자 인구나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구에 비해 열악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들이 보고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상존하는 인구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노숙자들 중 거리 노숙자(Street-based homeless)를 대상으로 노숙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평가의 일부로써 우울정도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숙기간과 이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우울정도에 대한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998년 7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까지 5회와 98년 8월 19과 25일 야간에 부산역 주변에서 조사 당시 조사자가 물어 자신이 '노숙자라고 밝히거나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고 밝힌 사람을 노숙자로 정의하여 총 144명의 남성노숙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내용은 의사의 이학적 검사와 노숙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결혼 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질병치료의 유형, 의료이용의 장애 이유, 노숙기간 중 실제 이용 의료기관, 음주/흡연량의 변화, 가족연락 유무, 식사/수면/위생활동, 면허·자격의 소지, 노숙기간, 최근 직업, SDS를 이용한 우울정도였다.

조사된 변수를 분류형으로 변환 후, 신체적 건강상태군과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우울정도군간에 노숙기간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에는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 likelihood ratio test for trend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연령 41.2 ± 11.7 세 71.1%가 30대와 40대였고 정규교육정도는 8.44 ± 3.62 년, 미혼 59명으로 평균연령 35.1세였다. 최근 직업은 단순노무직 근로자 63명(43.8%), 어업숙련근로자가 30명(20.8%) 등이었고, 한가지 이상의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은 26명(18.1%)이었다.

노숙기간은 9.29 ± 9.35 개월이었고 노숙기간의 중앙값은 6개월이었다.

현재 질환을 가진 사람은 144명 중 85명으로 94건이었고 근골격계 및 결체조직질환(33.0%), 소화기계 질환(23.4%), 호흡기계 질환(12.8%)순의 빈도였으며 이들 중 의사의 진료를 받아 치료 중인 사람은 19명(22.4%)에 불과하였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2명이었다. 신체질환 유무를 결과변수로 둔 다변량분석결과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질환의 유병교차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우울정도가 낮은 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군의 신체질환의 유병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였고 연령과 우울정도를 보정후 노숙기간이 증가할수록 신체질환의 보정유병교차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 유의한 직선적인 양-반응관계가 성립되고 있었다($X^2_{trend}=4.672$ $p<0.05$, $X^2_{departure}=4.672$ $p>0.05$).

SDS결과에서는 점수는 50.6 ± 10.8 였고 심리적 우울성향, 정동적 우울성향, 생리적 우울성향의 순으로 그 점수가 높았으며, 우울점수군을 결과변수로 둔 다변량회귀분석에서 질환군의 유병교차비 2.50(95%CI 1.21-5.17), 면허·자격이 없는 군의 유병교차비 2.51(95% C.I 1.08-5.38)를 보였으나 노숙기간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X^2_{trend}=1.438$ $p>0.05$).

4. 고찰

이번 노숙자는 물론 홈리스 정의 자체에도 여러 異論이 있는 상황이다(Bruce 1994; Christopher 1998; Lillian 1989; 김미숙 1998). 이 조사에서도 노숙자를 이전의 행려자나 부랑자와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이 조사의 노숙자들 중 노숙기간이 8개월 미만인 사람이 91명 1년 이하가 11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44명 중 117(81.3%)명이 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 시작시기와 같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가족이 없는 18명은 연고자가 없으므로 경제불황과 무관한 이전 발생 행려자로 분류한다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144명 중 적게는 117명 많게는 126명까지 최근의 불경기로 발생한 노숙자로 보아도 될 것이다.

Carol 등(1998)은 노숙 또는 홈리스의 기간이 약물중독,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유무 따라 노숙기간의 장기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를 근거로 생각하면, 1년 이상 장기 노숙의 비율이 외국의 13%(Bines 1994)와 비교해 이번 연구에서 18.7%를 김미숙(1998)의 조사에서는 18%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행려자를 포함하는 노숙자와 외국의 홈리스 성격 비교는 더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들에서는 노숙기간이 길수록 신체질환의 유병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아 노숙환경자체가 이들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변수임을 볼 수 있었고, 노숙기간과 우울정도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볼 수 없었다. 앞으로 노숙자의 특성과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변수의 탐색은 물론 이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